

복 지 팡 세

뒷
이
야
기

복지팡세

성경으로 사회사업을 배우고 실천하고 성장하는 이야기

2016년 11월 5일

servant@welfare.or.kr 02-822-2643, 010-3080-8197

원고를 홈페이지(welfare.or.kr)에 한글과 PDF 파일로 공유합니다.

1. 구제와 구원	3	9. 동역	25
2. 교회 사회사업	9	10. 동료	31
3. 강점	10	11. 어른을 책망할 때	35
4. 위험한 수단	15	12. 아이를 책망할 때	38
5. 사회사업 공부	18	13. 남이 욕할 때	39
6. 인문학	19		
7. 역설	21	소원	42
8. 안식일	22	유언	42

1. 구제와 구원

1) 구제 대상자의 구원

영혼 구원에 쓰이지 않거나 전도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구제는 가치가 없을까요? 영혼 구원이나 전도를 위해 구제를 수단화해도 될까요?

구제 대상자의 영혼 구원, 간절히 원하는 바입니다.
구제가 전도에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구제와 영혼 구원은 별개입니다. 구제한다고 예수 믿게 되는 건 아닙니다. 구제가 구원에 이르게 하는 건 아닙니다.

전도 수단으로 하는 구제는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교회 등록이나 예배 참석을 조건으로 하는 구제는 더욱 그렇습니다.

사회사업은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사에 동역하며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는 일입니다. 그 자체로 귀하고 복된 일입니다. 약자에 대한 하나님의 배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 사도들의 행적, 어느 모로 보나 구제는 그 자체로 가치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¹⁾

1) 예수님께서 가난한 사람과 병든 사람과 귀신 들린 사람과 장애인을 도우심도 대개는 그저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마14:14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맹인을 보게 하실 때에도(마20:31~34), 나병환자를 깨끗하게 하실 때에도(막1:40~43), 나사로를 살리실 때에도(요11:33~35)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실 때에도(눅7:11~17) ‘불쌍히 여겨’ 그리하셨다고 쓰여 있습니다.

구제와 전도

행9:36~42 읍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 때에¹⁾ 병들어 죽으매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룻다가 읍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 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겹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 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읍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1) 행9:32~35 그 때에 베드로가 사망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여덟 해라.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네 자리를 정돈하라 한대 곧 일어나니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2) 구제하는 사람의 구원

엡2:8~9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갈2:16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써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써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¹⁾

갈2:21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폐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롬4:4~5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삯이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롬11:6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 되지 못하느니라.

1) 평화의 기도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심게 하소서.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며 자기를 온전히 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이니.”

이렇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끝 부분을 ‘주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영생을 얻기 때문이니’로 바꿔 부르기도 하는데, 그러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믿음과 행함

약2:14~26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덮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여기 ‘행함’이 선행이나 윤리적 행위를 가리키는 말일까요?

아브라함과 라합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은 어려운 사람에게 쓸 것을 주어 평안하게 따뜻하게 배부르게 한 ‘선행’ 때문일까요? 정직하거나 깨끗한 ‘윤리적 행위’ 때문일까요?

강도 만난 사람과 이웃, 영생과 자비

눅10:25~37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자신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¹⁾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을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푸는 자니이다.²⁾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³⁾

1) 영생을 얻기 위해 내가 사랑해야 할 이웃이 누구입니까?

2) 강도 만난 사람이 내 이웃이고 그러므로 영생을 얻으려면 강도 만난 사람 같은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는 말씀일까요? 강도 만난 사람 같은 내게 자비를 베풀어 살리신 예수님이 내 이웃이고 그러므로 영생을 얻으려면 예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말씀일까요?

3) 영생을 ‘얻으려면’ 이와 같이 하라는 말씀일까요? 예수님의 자비로 영생을 ‘얻었으니’ 예수님처럼 자비를 베풀라는 말씀일까요?

아래 말씀들도 마음에 담아 둡니다.

마25:31~40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쪽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에 임금의 그 오른쪽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주릴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었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주리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뵈었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41~46 (요약) 왼편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저주를 받을 자라 하시되 그들은 작은 자가 주리거나 목마르거나 나그네 되었거나 벗었을 때나 병들었을 때나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지 아니하였다 하시리라 하셨습니다.

마7:21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2. 교회 사회사업

막7:9~13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 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이와 같이 이웃에게 나누어야 할 것을 교회에 바치게 함으로써, 교회 일을 위해 이웃 사랑을 저버리게 하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습니다.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 하셨는데(마5:13~14) 그 빛을 교회라는 말 아래 두고 그 소금을 교회라는 항아리에 담아 두니 세상은 어두워지고 맛을 잃어 갑니다. 교회에서만 빛과 소금입니다. 교회만 빛나고 맛납니다. 교회는 좋은 일 많이 한다는데 교인들은 선한 행실을 잃어 갑니다.

교인을 동원하여 교회의 ‘복지사업’을 이루기보다 저마다 제 마당 제 삶터 자기 인간관계와 일상생활에서 선행하는 ‘교인의 삶’을 세우면 좋겠습니다.¹⁾

1) 대조 - 행4:33~35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팔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 롬15:25~26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고후 8~9장)

시험에 들고 원망을 살 수 있으니 조심! 행5:1~11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시험, 행6:1 구제와 원망, 고후8:20~21 구제 연보에 대한 비방 우려 - 선한 일도 조심!

3. 강점

1) 문제 비우기

육체의 욕심은 지우려 할수록 더 생각나고 없애려 할수록 더 살아나곤 합니다. 육체의 욕심을 없애려고 싸우기보다 그저 성령을 따라 행하는 편이 낫습니다.

갈5:16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¹⁾

문제를 비우면 다른 문제가 들어옵니다. 옛 문제가 다시 오기도 합니다. 문제가 더 심해지거나 많아지기도 합니다.

마12:43~45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일곱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자꾸만 문제를 보고 문제를 건드리고 문제와 싸우려 드는 사람에게는 이 문제 저 문제 온갖 문제 이어 들어 편안한 날이 없습니다.

문제 비우기는 ‘모래 웅덩이에서 물 퍼내기’와 같습니다.

1) 죄가 들어오지 못하게 하려고 애써 보지만 잘 되지 않습니다. 선을 행하는 편이 낫습니다.

창4:6~7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나?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었드려 있느니라.

2) 강점 채우기

고후12:7~10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세 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 때에 강함이라.

약점을 없애려 애쓰기보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함이 좋습니다. 내가 약한 데서 주님의 능력이 온전하여지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함’이라는 삶의 목적, 이 강점을 살리면 약점도 기뻐할 수 있으니 내가 약한 그 때에 오히려 강하기 때문입니다.

문제 나뉘어졌지만, 문제가 없어지면, 좋을까요? 문제를 없애는 일이 꼭 좋은 일이라는 확신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문제를 없애려 하기보다 문제가 있음에도 살아갈 만한 강점을 찾으려 합니다. 문제를 감당 극복 초월할 수 있을 만한 강점을 살리려 합니다.

문제를 꼭 없애야 하는 건 아닙니다.

문제가 있어도 살아갈 수 있다면, 문제를 감당 극복 초월할 수 있다면, 문제까지 합하여 선이 되게 할 수 있다면, 문제에 잘 대응한다 할 수 있습니다.

3) 하나님 강점

신20:1~4 네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하시느니라.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아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왕하6:15~17 (아람 왕이 엘리사를 잡으려고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어 에워쌌더니)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매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대하32:6~8 (앗수르 왕 산헤립이 예루살렘을 치러 온 것을 보고 히스기야가) 성문 광장에서 자기 앞에 무리를 모으고 말로 위로하여 이르되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앗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매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열두 사람이 가나안 땅을 정탐했습니다. 열 명은 문제를 보았고 문제 중심으로 보고했습니다.

민13:32~33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다른 두 명은 강점을 보았고 강점 중심으로 보고했습니다.

민14:7~9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리고 성을 만났을 때, 크고 견고한 성이라는 문제를 바라보며 고민하지 않았습니 다.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 다.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한 겹니다. 여호수아 6장, 고후10:4

블레셋과 싸울 때, 사울 왕의 군대는 골리앗을 보고 두려워 떨었습니다. 문제에 골몰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았기에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 다. 무시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강점을 보니 문제는 별것 아니었습니다.

저쪽에 거인들과 여리고 성과 골리앗이 있을지라도, 이쪽에 하나님이 계시니 문제 없다는 말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께서 함께하시니 두려워하지 않는다 함과 같습니다. 시23:4

4) 당사자와 지역사회의 강점

왕하4:1~7 (과부의 기름과 아들, 이웃의 그릇)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의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 이다 이제 빛 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네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네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빛을 값고 남은 것으로 너와 네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5) 멸망 요인과 구원 요인

창18:26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오십 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32 거기서 십 명을 찾으시면 어찌 하려 하시나이까? 내가 십 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렘5:1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4. 위험한 수단

사30:1~3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었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에 죄를 더하도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라.

사31:1~3 도움을 구하려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¹⁾ 그의 말씀들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들을 치시리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²⁾

1) 앓수르가 침략하자 이스라엘은 애굽에 구원을 요청했습니다. 강한 기병과 많은 전차를 의지했습니다.

2) 외부 자원 찾아 해매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공모 사업을 의지하며 자원의 많음과 문서작업에 심히 통달함을 의지하고 당사자의 삶과 지역사회 사람살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당사자와 지역사회를 주체로 세우지 아니하니 당사자와 지역사회도 꺾이 있을지라도 더욱 의존하려 들고 더욱 떠맡기려 들고 더욱 요구하려 들든지, 아니면 자존심을 버리지 아니하고 들고일어나 자주성과 공생성을 해치는 자들의 집단을 치며 그 자금을 대 주는 정부와 물주들을 치리니, 외부 자원은 한 바가지 물이요 물의 원천이 아니며, 그 자원은 곧 없어질 것이요 항구한 자산이 아니라. 평지풍파 일어나 돕는 자도 시험 들고 도움을 받는 자도 시험 들어 다 함께 구차해지리라.

잠25:19 환난 날에 진실하지 못한 자를 의뢰하는 것은 부러진 이와 위
골된 발 같으니라.

겔29:6~7 애굽은 본래 이스라엘 족속에게 갈대 지팡이로. 그들이 너
를 손으로 잡은즉 네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어깨를 찢었고 그들이 너
를 의지한즉 네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허리가 흔들리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 베푼 계약은 그 실상이나 결국이 이러합니
다. 혹 눈앞의 곤경은 벗어날지라도 항구한 자산이 되지 못하고 더 큰
문제를 일으킬 겁니다.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파는 웅덩이는 물을 가두
지 못할 터진 웅덩이입니다. 애굽의 물 앗수르의 물은 복통과 질병을
일으키는 물입니다. 무릇 생수의 근원을 버리면 마실 물도 없거니와 이
미 그 자체가 악이고 재앙입니다.

렘2:13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
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렘2:18~19 네가 시홀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으로 가는 길에 있음은 어
찌 됴이며 또 네가 그 강물을 마시려고 앗수르로 가는 길에 있음은 어
찌 됴이냐? 그런즉 네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네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와의 말씀이니라.

사회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사자와 지역사회의 자연력으로써 아
니하고 복지기계에 의존함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입니다. 더 큰 고통
을 낳는 일입니다.¹⁾

1) 복지 자연력과 복지기계

사람에게는 복지 본성이 있습니다. 안으로는 자주하려는 마음, 책임 의식,
자존심이 있습니다. 밖으로는 남을 도우려는 마음, 공동체 의식, 동정심이
있습니다. 사람에게에는 또한 복지 역량과 자원이 있습니다. 스스로 돕고 남을

복지기제는 갈대 지팡이와 같아서 그것을 의지하면 쪼려 들어갑니다. 힘쓸수록 빠져드는 높이고 죄어드는 족쇄입니다.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옹덩이입니다. 더한 갈증을 일으키는 짠물입니다.

복지기제는 당사자의 삶 지역사회 사람살이에 복지병을 일으킵니다. 혼을 마비시키고 인간성을 고사시킬 수 있습니다. 당사자와 지역사회의 복지 바탕을 해치고 평지풍파 일으키기 쉽습니다.¹⁾

도울 수 있는 물질 재능 경험 정보 지식 지혜 체력 시간 공간 인맥이 있습니다. 이런 복지 본성과 역량과 자원이 복지 자연력입니다.

당사자와 지역사회의 복지 자연력을 놓아두고 복지를 이루어 주는 수단이 복지기제입니다.

1) 복지기제로써 해 주다 보면

당사자는 주체의식과 역량이 약해지고 자기 삶을 잃어 갑니다. 갈수록 구차해집니다. 사회성과 관계망이 줄어들고 지지체계가 허술해집니다. 갈수록 취약해집니다.

지역사회는 이웃 관계와 인정의 소통이 줄어들고 정겨운 사람살이를 잃어 갑니다. 갈수록 삭막해집니다.

사회사업가는 부담이 늘어나고 감동을 잃어 갑니다. 갈수록 힘들어집니다.

복지기제로써 주는 노릇 하다 보면 평지풍파 일어나기 쉽습니다.

안 받거나 못 받거나 덜 받는 사람은 배 아프고 아쉽고 섭섭하니 평지풍파이고, 받는 사람과 사이가 나빠지기도 하니 평지풍파입니다.

받는 사람 가운데 더러는 부끄럽게 여기니 평지풍파이고, 더러는 굶질거리거나 욕심부리거나 의존하려 드니 평지풍파입니다.

주는 사람은 남이 알아주기 바라는 마음 자랑하려는 마음이 은근히 일어나니 평지풍파이고, 다음에 또 주어야 하고 더 주어야 할 것 같은 부담이 생기니 평지풍파이고, 비교당하거나 시비에 휘말리니 평지풍파이고, 욕먹거나 위협을 받기도 하니 평지풍파입니다.

5. 사회사업 공부

잠19:2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롬10:2~3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이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사회사업도 그렇습니다.

올바른 지식을 따라 행하지 않으면 자기 의만 세우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은 보람을 느끼고 사람들도 칭찬하는데 정작 받는 사람에게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더러는 자기 의를 세우느라 당사자의 삶을 해치고 복지사업 실적을 높이느라 지역사회 사람살이를 허물입니다.

이렇듯 잘 준비하지 않으면 사회사업가로서 합당치 않거니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도 덕스럽지 못합니다.

몸은 한 지체뿐 아니요 여럿이니, 머리도 발도 눈도 손도 모두 같은 몸에 속한 것입니다. 지체 간에 우열이 있을 수 없고 다만 각각 기능이 다를 뿐입니다. 고전12:1~30

사회사업도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 행하는 성직입니다. 잘 준비하지 않으면 잘하기 어렵고 오히려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교회 일을 우선하느라 사회사업을 부업처럼 하면 어찌되겠습니까? 세상의 빛이고 세상의 소금이라 하셨는데, 교회 일로 바쁘면 어떻게 세상의 빛과 소금 구실을 할 수 있겠습니까? 빈축이나 사지 않으면 다행이겠습니다. 교회 활동은 열심히 하면서도 전공 활동은 소홀히 하는 학생, 민망합니다.

참조 : 복지야성 대학생 편 '실무 준비와 취업'

6. 인문학

인문학이 흔히 그러하듯 사회사업에서도 자주와 공생을 강조합니다. 다만 신자로서는 조심합니다.

1) 사회사업가로서는, 당사자가 자기 복지의 주체로 행하게 돕자, 복지를 이루되 당사자가 이루는 당사자의 삶이 되게 하자, 당사자에게 공이 돌아가게 하자 합니다.

그러나 신자로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여 제 뜻대로 살기를 꺼립니다. 하나님께서 지도하시고 다스리시기를 원합니다. 제 삶 제 복지를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기를 원합니다.¹⁾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2) 사회사업가로서는 당사자의 인간관계와 지역사회 이웃 관계를 살려 돕자 합니다. 그러나 신자로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중시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사람과의 관계에 더 힘쓰고 바라고 의지하게 되지 않을까 오히려 경계합니다.

1)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 의지를 주셨으나 당신의 뜻대로 다스리십니다.(단4:17,35) 원하는 자나 달음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되는 일이 있습니다.(롬9:16)

그러므로 ‘주의 뜻이면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약4:15)’ 합니다.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마26:39)’ 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전15:31)’ 합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갈2:20)’ 합니다.

최선의 자유 의지, 그것은 바로 지도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잠16:9) 하나님의 뜻만 완전히 서기를 바라고(잠19:21)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3) 인문 지성에 대한 경계

창3:6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시2:2~3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피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 버리자.’ 하는도다.¹⁾

시14:1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고전1:18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²⁾

골2:8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³⁾

마6:13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1) 시2:4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이다.

고전3:19~20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 이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2) 고전1:22~23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키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고전2:14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3) 사회사업에서의 인문학 활동

어설픈 활동으로 인문학을 오도하게 될까 두렵습니다. 유행처럼 일어났으니 그렇게 꺼질 것 같아 지레 부끄럽습니다. 인문학 공부를 성공이나 행복을 위한 수단으로 여기게 될까 조심스럽습니다. 인문학 활동을 사업설적이나 명예나 이익의 재료로 치부하게 될까 조심스럽습니다. 인본주의에 빠져 하나님과 멀어질까 두렵습니다. 이래저래 신중해집니다.

7. 역설

전1:18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전7:15~18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네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전12:12 내 아들이야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8. 안식일

창2:2~3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레23:3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쉼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와의 안식일이니라.

신5:12~14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네 하나님 여호와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소나 네 나귀나 네 모든 가축이나 네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네 남종이나 네 여종에게 너 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사58:13~14 만일 안식일에 네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네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네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네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네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1) 예수님께서서는 안식일에도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눅13:10~16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열여덟 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네가 네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 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 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 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열여덟 해 동안 사탄에게 매인 바 된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느냐?”

2)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요7:23~24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3)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알라.

마12:1~5, 7 그때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4)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

마12:9~13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막2:27~28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5) 사회사업가의 주일 근무

주일에 당번이 되었다면, 주일에 해야 하는 행사가 있다면, 어찌할까요? 외모 곧 주일이라는 형식으로 판단하지 않고 공의로 판단한다면,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하신 뜻을 생각한다면...

주일이라는 이유로 근무를 거부함으로 덕을 세우기는커녕 오히려 빈축을 살 수 있습니다.

만약 주일에 근무하는 일이 잦아서 신앙생활에 지장이 있다면 한두 번 말씀드려 보고 뜻을 이룰 수 없으면 조용히 다른 직장을 찾아봅니다. 떠나더라도 원수 같이 생각하지 말고 친정 같이 여깁니다. 떠나서도 험담하지 말고, 좋았던 일 고마웠던 일을 이야기하며 감사합니다.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축복합니다.¹⁾

1) 단3:10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살후3:14~15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 같이 권면하라.

9. 동역

전4:9~12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무를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 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마18:19~20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 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1) 모세

출18:24~26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¹⁾ 그 모든 말대로 하여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오십부장과 십부장을 삼으매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더라.

민11:14~17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서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 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네가 알기로 백성의 장

1) 모세가 홀로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 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서 있으니, 모세도 백성도 힘들겠는지라, 능력 있는 사람을 세워 작은 일은 그들이 재판하게 하라고 조언했습니다.

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칠십 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네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2) 바울

빌4:11~12 내가 궁핍하므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궁핍하지도 않고 어떤 형편에든지 자족할 줄 아는 바울, 도움이 필요할까요? 빌립보 교회가 보내 주어 풍족하다 합니다.¹⁾

빌4:13~14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²⁾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만 외우다가 어느 날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이 말씀이 들어왔습니다. 내가 다 할 수 있을지라도 ‘동역’이 귀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사람이 다 할 수 있을지라도 도울 여지가 있겠고 도와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도 열두 제자와 동역하셨습니다.

1) 빌4:18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하니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으므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2) 바울이 마케도니아를 떠날 때에 빌립보 교회가 도와주었고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빌립보 교회가 여러 번 쓸 것을 보내 주었습니다.

3) 중보 기도

①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려 할 때 아브라함은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려나이까? 50, 45, 40, 30, 20, 10 의인 십 인이 있을지라도 멸하시려나이까?” 이렇게 여러 차례 감히 말을 바꿔 가며 간절히 중보했습니다. 창세기 18~19장

②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숭배하는 큰 죄를 범했을 때, 여호와께로 나아가 슬퍼하며 자기 백성을 위해 중보했습니다. “그들의 죄를 사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버려 주옵소서.” 출애굽기 32장

바울도 자신의 동족을 위해서라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 할지라도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롬9:3

③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이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중보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④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교회는 그를 위해 간절히 하나님께 빌었습니다. 이에 주의 사자가 베드로를 이끌어 내니 쇠사슬이 벗어지고 감옥문이 열려 성도들에게 돌아갔습니다. 행12:5~12

⑤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롬8:26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롬8:34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⑥ 바울

바울은 많은 사람을 위해 기도했을 뿐 아니라 많은 사람에게 자신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고후1:11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엡6:19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골4:3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은 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 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살전5:25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살후3:1~2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 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⑦ 다니엘

바벨론 왕 느브갓네살이 꿈을 꾸고는,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를 불러 그 꿈과 해석을 보이라고 다그쳤습니다. 꿈을 이야기해 주시면 해석해 드리겠다고 하니, 왕이 진노하여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했습니다. 이에 다니엘은 친구들에게 그 일을 알리고 중보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단2:16~18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 드리리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하나님께서 꿈의 내용과 해석을 다니엘에게 보여 주셨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왕에게 나아가 알려 드렸습니다. 왕은 다니엘에게 절하고 하나님을 칭송했습니다. 다니엘에게 선물을 많이 주고 높이 세웠습니다. 다니엘은 친구들을 천거했고, 왕은 다니엘의 친구들을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했습니다.

⑧ 여호사밧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이 유다를 치러 오자, 여호사밧 왕은 백성에게 금식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대하20:1~4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낫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여호사밧 자신도 기도했습니다.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여호와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대하20:21~23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 산 주민들을 치게 하시므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 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4) 동역자를 모을 때

신20:2~9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아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 과실을 먹을까 하노라.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노라.’ 하고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하고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친 후에 군대의 지휘관들을 세워 무리를 거느리게 할지니라.

다른 일과 이 일 사이에서 마음이 확정되지 않은 사람, 이 일에 대한 의지 열정이 없는 사람, 이 일에 전념하기 어려운 사람, 두려워하는 사람, 준비하지 않은 사람, 이런 사람은 돌려보냄이 좋겠습니다.

사회사업 잘해 보려는 사람, 잘할 수 있는 사람, 이 일에 대한 의지와 열정이 있는 사람, 이 일에 전념할 수 있는 사람, 준비해 온 사람, 이런 사람과 함께함이 좋겠습니다.¹⁾

1) 조심 :

마13:29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요6:37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10. 동료

사귀는 사람에 따라 복이 되기도 하고 화가 되기도 하니, 동료를 가려 사귀입니다. 단, 외모로 취하지는 않습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다 했습니다. 잠31:30

1) 지혜와 지식, 지지와 격려, 인정과 비판, 자극과 도전으로써 사회사업 더 잘하게 만드는 사람을 가까이합니다.

잠13:20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잠27:5~6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잠27:9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잠27:17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2) 해가 될 사람을 멀리합니다.

잠18:24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나니.

잠29:24 도둑과 짝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미워하는 자라.

고전15:33 속지 말라.1)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유다 왕 여호사밧은 주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고 백성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했습니다.(역대하 17장) 그러나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자 아합 왕의 가문과 인척 관계를 맺고 전쟁에서 그를 도와 하나님의 진노를 샀습니다.(역대하 18장)

대하19:2 하나니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이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또한 심히 악을 행하는 이스라엘 왕 아하시야와 교체하므로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습니다.

대하20:35~37 유다 왕 여호사밧이 나중에 이스라엘 왕 아하시야와 교체하였는데 아하시야는 심히 악을 행하는 자였더라. 두 왕이 서로 연합하고 배를 만들어 다시스로 보내고자 하여 에시온게벨에서 배를 만들었더니 마레사 사람 도다와후의 아들 엘리에셀이 여호사밧을 향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왕이 아하시야와 교체하므로 여호와께서 왕이 지은 것들을 파하시리라 하더니 이에 그 배들이 부서져서 다시스로 가지 못하였더라.

1) 시55:12~14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대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대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우로다.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 하여 하나님의 집 안에서 다녔도다.

사회사업가로서 자주 불평하거나 험담하는 사람, 실력과 덕을 쌓는 데는 게으르면서 자기 몫 챙기는 데는 빠른 사람, 불의한 사람, 탐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사귀지 않습니다.

잠22:24~25 노를 폼는 자와 사귀지 말며 올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의 행위를 본받아 네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니라.

잠23:20~21 술을 즐겨하는 자와 고기를 탐하는 자로 더불어 사귀지 말라. 술 취하고 탐식하는 자는 가난하여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임이니라.

잠24:1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잠28:7 음식을 탐하는 자와 사귀는 자는 아버리를 욕되게 하는 자니라.

고후 6:14~17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메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사회사업가라 하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면 사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고전5:9~11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의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특히 먹고 마시는 자리를 잘 가립니다. 지위가 높거나 부유한 사람이 내게 음식을 베풀 때는 더욱 조심합니다.

잠23:1~2 네가 관원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삼가 네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며 네가 만일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나 네 목에 칼을 둘 것이니라.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속이는 음식이니라.

잠23:6~8 약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며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지어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한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네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함이라. 네가 조금 먹은 것도 토하겠고 네 아름다운 말도 헛된 데로 돌아가리라.¹⁾

1) 집회서 31:12~20 성찬을 차린 식탁에 앉았을 때, 입을 딱 벌리고, ‘야, 굉장하구나.’ 하고 말하지 말아라. 게걸들린 눈초리는 상스럽다는 것을 알아라. 세상 만물 중에서 눈보다 더 죄스러운 것이 어디 있겠느냐? 그래서 눈은 자칫하면 눈물을 흘린다. 주인이 바라보고 있는 음식에 먼저 손을 내밀지 말고 그가 집는 음식을 다투어 집으려 하지 말아라. 네가 좋아하는 것은 남도 좋아한다고 생각하고 매사에 조심하여라. 네 앞에 놓인 것만 점잖게 먹어라. 게걸스럽게 먹으면 남의 빈축을 산다. 예의바르게 먼저 숟가락을 놓아라. 포식을 하는 것은 실례가 된다. 여럿이 식사할 때에는 남보다 먼저 수저를 들지 말아라. 점잖은 사람은 너무 많이 먹지 않는다. 그러면 오히려 잘 때에 숨이 가쁘지 않다. 절제 있게 먹으면 잠도 잘 오고 상쾌한 기분으로 일찍 일어나게 된다. 포식한 자에게 돌아오는 것은 불면과 구토와 복통뿐이다.

집회서 37:29~30 맛있는 음식이라고 결신들려 먹지 말고, 음식에 탐욕을 부리지 말아라. 과식하면 병이 나게 마련이고 포식을 하면 복통을 앓게 마련이다.

잠25:16 너는 꿀을 보거든 족하리만큼 먹으라.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우니라.

11. 어른을 책망할 때

출22:28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레19:32 너는 센 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네 하나님을 경외하라.

민12:1~10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아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 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와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시매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삼상26:9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전10:4 주권자가 네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네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느니라.

행23:1~5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법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네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네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롬9:10~20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달음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

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공홀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롬13:1~2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
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엡6:5 종들이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
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골3:22 종들이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
으로 하라.

딤후2:1~2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
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딤후6:1~2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
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
게 하려 함이라.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
랑을 받는 자임이라.

벧전2:13~14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
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지도자나 윗사람이나 어른이라도 비판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조심스럽습니다. 내게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는지, 감당할 수 있을지, 결국 이 어떠할지, 헤아려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¹⁾

그래도 지도자나 윗사람이나 어른의 잘못을 바로잡아야 한다면 태도와 말투가 아주 중요합니다. 자칫 문제의 본질은 묻혀 버리고 그 태도나 말투가 시빗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딤편5:1~2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12. 아이를 책망할 때

인격과 자존심을 짓밟지 않습니다. 상처 주지 않습니다. 기죽이지 않습니다. 격분하게 하지 않습니다. 적개심 복수심 한을 품게 하지 않습니다. 아이의 마음을 칼로 찌름 같이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잠19:18 네가 네 아들에게 희망이 있으즉 그를 징계하되 죽일 마음은 두지 말지니라.

엡6:4 또 아버지야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골3:21 아버지야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1) 마18:7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마26:24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13. 남이 욕할 때

1) 저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잠26:2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도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애3:37~38 주의 명령이 아니면 누가 이것을 능히 말하여 이루게 할 수 있으랴. 화와 복이 지존자의 입으로부터 나오지 아니하느냐.

욥1:6~12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 념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율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이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네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네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¹⁾

1) 왕상22:19~23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와 말씀들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이합을 꺾어 그를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꼬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또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아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꺾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

2)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신23:4~5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시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승장구하며 모압 평지에 이르렀습니다. 모압 사람이 심히 두려워했습니다. 이에 모압 왕 발락이 선지자 발람에게 사람을 보내어 ‘와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했습니다. 높은 벼슬과 원하는 것을 주겠다고 약속하며 집요하게 회유했습니다. 발람이 마침내 발람에게 갔습니다.(민수기 22장)

발락이 발람을 대접하고 높은 곳으로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발람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었습니다. 세 번씩이나 그랬습니다. 발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민23:8,20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민24:13 가령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나는 여호와와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간에 내 마음대로 행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서 이르시되 너는 피겠고 또 이르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3) 저주하게 돕니다.

하나님께서 저주를 허락하셨고, 저주까지도 적당한 때에 적당하게 쓰심으로 선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전3:11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잠16:4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롬8:28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의 반란을 피하여 도망하는 길에, 시무이라는 사람이 돌을 던지며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이에 아버새가 가서 그 목을 치겠다고 하자 다윗은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네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했습니다. 삼하16:5~13

소원

언제든지 툭툭 털고 일어나 미련 없이 떠날 수 있는
욕심도 없고 얽매임도 없는 나그네이고 싶습니다.

천진난만한 동심과 해맑은 웃음으로
때 묻고 코 묻어도 마냥 좋은 털털이이고 싶습니다.

땀 흘려 일하고 달게 잠으로 행복해하며
먹을 것 입을 것 있음으로 족한 줄 아는 빈자이고 싶습니다.

떼어 주고 뽑아 주고 흠으로 돌아갈 때까지
섬기기만 하다가 이름 없이 사라지는 머슴이고 싶습니다.

유언

장기와 시신은 약속한 곳에 기증하고 1588-1589
유품은 필요한 곳에 주거나 없애 주십시오.
부고하지 말고 무덤을 만들지 마십시오.

자녀들아,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 알자.
사는 동안 나그네와 같이 지내며 선한 일에 힘쓰자.

범사에 감사하자.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가장 좋은 복이니,
무엇보다 이 복을 누리며 살자.